



11월은 미디어아트의 계절

11월은 국내외 창의도시 간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개최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의 한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올 11월은 국내외 창의도시 간 다양한 협업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온라인 회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업무 방식은 창의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견인하는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오는 11월 다양한 형태로 펼쳐질 국내외 창의도시 간 협업 프로그램이다.

▲주한프랑스대사관과 협업 VR전시 'Digital November' = 광주문화재단과 주한프랑스대사관이 함께하는 환상의 VR전시 'Digital November'는 오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338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주제 'Digital November'는 '제4회 프랑스 디지털 문화축제'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시작품은 'Le Cri VR'로, 'Le Cri'는 '절규'라는 의미다.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 '절규'를 재해석해 몽크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VR다큐멘터리로 담았다. 관객들은 VR기기를 쓰고 몽크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VR작품도 미디어338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국제디지털 포럼' = 광주문화재단은 11월 1-2일 대구에서 진행되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 국제 디지털 포럼'에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한다. 박성화 작가

다양한 국내외 창의도시 국제 교류, 협업 프로그램 진행 문화재단-주한프랑스대사관 협업 전시 'Digital November'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13개국 참여 온라인 협업 프로젝트도

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오픈닝 공연에서 작품 'Recovery'를 선보이며, 인간의 삶과 자연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미디어아트창의도시 13개국 도시 참여 온라인 프로젝트 참여= 광주문화재단은 광주가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 지정(16개국 17개 도시)된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2021 City to City : Play'에 담당기관으로 참여한다. 성과는 11월말 온라인 디지털 축제로 선보일 계획이다.

'2021 City to City : Play'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회복 가능성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기획 및 추진회의를 거쳤다.

참여도시는 광주(대한민국), 오스틴(미국), 브라가(포르투갈), 칼리(필리핀), 앙기엔레벵(프랑스), 과달라하라(멕시코), 칼스루에(독일) 등 13개 도시가 참여해 도시별 각 1명씩 총 13명 작가(팀)가 함께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로는 김안나(한국문화기

술연구소 선임연구원)가 선정됐다. 이태현 작가는 요크(영국)측 요청으로 요크의 참여작가로 발탁돼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 일환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 = 지난달 열린 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의 특별세션으로 펼쳐진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유튜브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 'This is not a Game'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광주, 앙기엔레벵)와 문학 창의도시(부천, 바르셀로나)의 협업 본보기가 됐다. 팬데믹 시대에서 놀이문화로 시작해 필수로 자리 잡은 온라인 문화를 광주의 3개 창의도시가 뉴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것. 광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는 풀바주카와 염인화 작가다. 풀바주카는 비대면 네트워크 공연을 주도적으로 기획했으며 염 작가는 협업과정에 기여했다.

문의 062-670-7454.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별밭 가얏고 '봄, 꽃, 가을, 사랑'

박귀희 명창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31일 광주문화회관

향사 박귀희(1921-1993) 명창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가야금병창 예술단 '별밭 가얏고' (사진)는 '문화재 맥을 잇다' 네 번째 정기공연 '봄, 꽃, 가을, 사랑'을 31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을 알리고 그 맥을 잇고자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문명자와 그 제자로 구성된 예술단 '별밭 가얏고'가 준비했다.

'봄'에서는 '봄총각', '내 고향의 봄', '봄노래', '봄의 합창' 등을 들려주며 '꽃' 무대에서는 '꽃이

피었네', '복숭아꽃', '꽃타령' 등 꽃을 주제로 한 곡을 선보인다. '가을'에서는 '아월삼경', '애수의 가을밤', '들국화'를, 마지막 '사랑'에서는 '상사 천리몽', '노들강 초록물' 등으로 관객과 만난다. 장교에는 박시양·이왕재, 대금 김승호, 아쟁 김정민, 해금 이소리, 신나는 심지가 함께 한다.

공연은 문명자 이사장과 박시은 기획·연출했고, 이수자인 김서운이 사회를 본다. 무대에는 송은지·김혜인·심세희·심가희·박시은·김가연·이초연 등 40여 명이 오른다. 공연은 '별밭 가얏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10-3605-8939. /전은재 기자 ej6621@

오페라 '코지 판 투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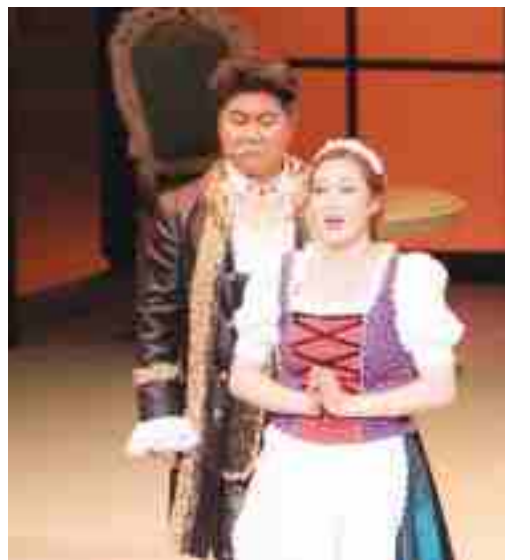
빛소리오페라단, 마지막 공연...내일 광주아트홀 무료관람

(사)빛소리오페라단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사진) 마지막 공연이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빛소리오페라단은 지난 5월부터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코지 판 투테'를 무대에 올렸으며 지금까지 다섯차례 관객과 만났다.

'코지 판 투테'는 우리나라 말로 '여자는 다 그래'라는 뜻이며 연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의 약혼녀를 서로 유혹하는 내용이다.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다룬 작품으로 19세기 당시 주제가 가볍고 사건 전개가 장난스럽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모차르트의 후기 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다.

빛소리오페라단 최덕식 단장이 총감독을 맡았고, 박미에 광주대 교수가 연출과 지휘로 참여한 다. 휘오르딜리지 역에는 소프라노 유희진이 출연하고, 도라벨라는 소프라노 윤희정이 연기한다. 휘란도는 테너 이원용이, 데스피나는 소프라노 김주아가 맡았다. 이밖에 바리톤 권용만, 피아노 천현주, 음악코치 장희경 등이 참여한다.

한편 1999년 창단한 빛소리오페라단은 오페라 '마술피리', '버섯피자', 창작오페라 '꽃 지어 꽃 피고', '학동엄마'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



나왔으며, 30회의 정기공연을 비롯해 순회 및 초청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폭 넓은 음악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공연은 광주아트홀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무료관람. 문의 062-227-744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양상블 브래싱이 들려주는 '국민주의 음악'

11월 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11월 첫 번째 월요콘서트는 양상블 연주단체 브래싱의 무대로 꾸며진다. 오는 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Brass in Romantic(부제: Liberation, 해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민족적 특색을 예술음악 속에 살린 '국민주의 음악'을 담았다. 국민주의 음악은 강대국 침략에서 벗어나 해방을 꿈꾸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냈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구체적 프로그램은 브로딘 '오페라 이고르 공중', 폴로베츠의 춤, 홀스트 '행성 모음곡' 목성 중 '송가', 립스키코르사코프 '트럼본 협주곡 3악

장',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 등이다. 이날 공연은 ▲트럼펫 추선호, 하민중, 홍연경 ▲호른 이정현 ▲트럼본 석수정, 김윤정 ▲베이스트럼본 김현우 ▲튜바 심재영 씨가 출연한다. 진행은 아나운서 박광신 씨가 맡는다.

광주를 대표하는 금관 연주단체를 표방하는 양상블 연주단체 브래싱은 금관악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작·편곡을 통해 연주곡 개발과 보급에 앞장 서고 있다.

선착순 50명 무료관람. 문화이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오는 11월 8일은 양상블슈필렌의 'Fall in Romantic' 공연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670-7924.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극단 청춘 '2인극 열전' 네가지 이야기

31일~12월11일 예술극장 통

극단 청춘(대표 오설균)은 1989년에 창단해 마당극, 인형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공연 외에도 오픈클래스, 연극 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극단, 주부극단, 직장인극단 등 아마추어 극단을 지도·육성했고, 100석규모의 예술극장 통을 개관해 연극의 대중화와 공연 활성화에 힘써왔다.

이번에는 오로지 두 명의 배우로만 무대를 꾸미는 '2인극 열전'을 준비했다. 오는 3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술극장 통(광주시 동구 호남동)에서 총 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첫 작품은 '마지막 20분동안 말하다'로 오는 31일부터 11월3일까지 만날 수 있다. 두 남녀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오면서 극은 시작된다.

두번째 작품인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11월25일-27일)은 만화가 종태의 집에 백과사

전 영업사원 상호가 방문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제목이 주는 친근한 느낌과는 다르게 치밀한 구성과 전개로 섬뜩함을 더한다.

12월2일부터 4일까지 무대에 오르는 세번째 작품 '늙은 부부 이야기'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로이 살아가던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를 그린다.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며 세 딸을 출가시킨 후 혼자살고 있는 이점순의 집에 단골이었던 박동만이 찾아오면서 사랑은 시작된다.

2인극 열전 마지막 작품 '32일의 식탁'(12월9일-11일)은 딸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모든 것이 망가진 중년 여인의 모습을 그린다. 10월의 마지막 날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해진에게 딸 윤지가 찾아온다. 해진은 오랜만에 찾아온 딸 윤지와 의 식사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윤지는 시계만 바라본다.

전석 2만원(사전예매시 30%할인). 예매는 극단청춘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062-430-5257)로 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극단 청춘 '2인극 열전'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40년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